

“새 극장서 닥치고 공연만 하겠다”

광주 동명동에 새 동지 든 극단 ‘푸른연극마을’

네번째 이전...단원들이 70석 규모 공연장 꾸며

“신진 연출가·연극 배우 발굴·지원에 힘쓸 것”

이전 개관 기념 ‘모란이 피기까지’ 15일까지 공연

‘광대야 광대야 걸으로 웃고, 속으로 우는 시절의 슬픈 뼈에로야.’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다 공연장 입구 간판에 적힌 글귀를 한참 동안 들여다 봤다. 아주 오래전 푸른연극마을의 배우 이당씨는 이 글귀를 누군가에게 받았다. 늘 마음에 담고 있었다. 이번에 소극장을 옮기면서 극장 입구에 ‘글씨 그대로’ 걸어두었다.

계단에는 ‘짬뽕’, ‘파우스트’, ‘꽃뽕 날다’, ‘별어곡’, ‘꽃같은 시절’,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등 극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포스터들이 종종 걸려 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벽에는 이런 글도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연극이다-피터 브룩.’

지역 연극계의 터줏대감 푸른연극마을이 전용극장 씨어터 연바람(광주시 동구 동명로 19-10 아트밸리스 지하 1층)을 이전했다. 장동 옛 인쇄아트센터 1층에 극장을 오픈한 지 3년만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다.

전남여고 뒷편 주차장 인근 아트밸리스 지하에 문을 연 극장은 7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다. 단원들이 몇개월 동안 망치 들고, 페인트 칠하며 직접 꾸민 극장은 작지만 아기자기하다. 눈이 부신 파란색과 노란색을 콘셉트로 잡아 극장에 포인트를 줬다. 무대와 객석 역시 예전 극장 보다는 작지만 잘 짜여진 느낌이다.

“이번에 네번째 이전입니다.(웃음) 지난 해말부터 장소를 물색하면서 마지막이라

는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오픈하면서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닥치고 공연을 하자’고. 예전 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우리 작품을 많이 공연할 생각입니다.”

극단 대표 오성완·이당금 부부가 무엇보다 방점을 찍은 건 신진 연출가·배우의 발굴과 지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젊은 연극인 그룹 ‘아리리연’의 자체 공연도 지원할 생각이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걸 펼칠 장이 없는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싶습니다. 실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연극에 미래를 걸고 뛰는 후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동지를 든 곳은 화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숙씨의 건물이다. 이곳엔 현재 지역 작가들의 화실이 자리잡고 있는데 강씨와 오씨 부부는 이 건물 자체를 아트타운처럼 꾸밀 생각도 갖고 있다. 오랫동안 강씨가 꿈꿔왔던 일로, 이번에 지하에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갤러리,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인근 20m 떨어진 곳에 극단 토박이의 ‘민들레 소극장’도 자리잡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전 개관 기념 공연으로 준비한 건 ‘모란이 피기까지’는-랑아 랑아 영랑아다. 15일까지 평일(월요일 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5시 공연한다.

대표 오성완씨가 쓰고 연출을 맡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1903년 강진에서 태어나 절제된 언어로 민요적 운율의 시를 썼던 시인 김영랑의 생애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시인의 일대기를 따라가기 보다는 언뜻 보기에 고루한 선비적 인상을 지닌 그의 삶 내면에 감추어진 편린들을 들춰내본 작품으로 영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구적 인물이다.



푸른연극마을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70석 규모의 ‘씨어터 연바람’을 새롭게 오픈했다.

무대는 혼들의 한을 씻어내는 저승의 염라국 명부전 업경대다. 어느 날 저승사자는 이승에서의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저승세계에 안착하는 대부분의 혼령들과 달리 깊은 잠에 빠져들어 깨어나질 않는 영광을 만나고 당혹해 한다.

경씨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 후에는 부산 극단 어니언 킹의 ‘봄이 오는 소리’, 대구 극단 한울림의 ‘인연’이 잇따라 공연된다. 공연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연젠가 세상은 연극이 될 것이다.’

안무 박선욱, 작곡 이민수 등의 스텝이 참여했으며 류강·정일행·이 새로미·소지원·황철악·송한울·임현수·이연우·김다

예매 인터파크,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민중화가 이명복 ‘그날 이후’전

30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미인도’

돌을 깨는 석공, 불타는 숲, 영어간판으로 뒤덮인 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작품에 담고 있는 민중미술화가 이명복 씨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6일부터 30일까지 ‘이명복-그날 이후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 ‘그날 이후’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를 의미한다.

전시에서 출품된 1984년 작 ‘그날 이후’는 서울 기지촌을 소재로 삼아 미국문제

를 다룬 작품이다.

1990년대 작품은 역사적 장소, 농민·노동자가 주요 소재다. ‘갈증’, ‘웃새 어기야!’ 등 노동자를 그린 작품은 민중들의 참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다. 그밖에 2000년대 이후 작품은 권력과 전쟁을 주제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꼬집는다.

중앙대 회화과를 졸업한 이씨는 일본, 광주, 서울 등에서 ‘코리아통일 미술전’, ‘5월 광주항쟁 10주년 기념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기다림’

‘사랑 그리고 또 사랑’...정선 작가 초대전

A.C.C디자인호텔 30일까지

정선 작가가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을 주제로 A.C.C디자인호텔에서 30일까지 기획 초대전을 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활활날다’ 등 대표작을 비롯한 40여점을 선보인다. ‘활활날다’는 단색 바탕에 조그만 새를 그려넣은 작품이다. 새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어머니의 사랑--하나, 둘, 셋, 넷’ 연작은 재료가 눈에 띈다. 하얀 당콩이, 석고 등을 빨래판 형상으로 만들고 하트, 무지개 등을 넣어 가슴 속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세월호 추모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작품 ‘기다림’에는 소용돌이 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가 위태롭게 떠 있다. 김푸른

바다를 벗어나려는 듯 뱃머리는 캔버스 바깥쪽을 향하며 안정감을 준다. 직접적인 묘사 보다는 은유적으로 세월호를 그리며 유족들에게 위로로 건넨다.

그밖에 ‘행복합니다’는 추상적으로 표현한 꽃 문양을 통해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희망찬 2017년을 기원하는 ‘꼬끼오’ 작품도 출품한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1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한국남부현대미술제(2015) 등에 참여했다. 현재 에코그·광주관화협회·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ACC호텔 전시 기획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문을 연 ACC호텔은 1층 로비와 카페 등을 활용해 매달 지역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222-52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10:00 ~ 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순나조각 앙코르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서창한옥문화체험관 ‘화전 만들기’ 체험 행사 8일...선착순 15가족 모집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봄맞이 화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전놀이 세시풍속의 유래알기, 백마산 진달래꽃 따기, 화전 만들기, 전통 꽃차 시음행사로 구성된다.

화전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세시풍속으로 삼월삼짇날(음력 3월3일) 들놀이 할 때 진달래꽃을 따 찹쌀가루에 섞어 지진 꽃전을 먹는 풍속에서 비롯됐다.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15가족을 모집

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체험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www.ymcak-wangju.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접수·문의 062-373-1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2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7. 4. 19(수) ~ 5. 30(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7년 4월 5일(수) ~ 4월 12일(수) | 미술·작문 부문 2017년 5월 15일(월) ~ 5월 17일(수)

-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 경연기간: 4월 19일(수) ~ 5월 30일(화)
-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7년 4월 17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목포시** | **나주시**